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더니, 여성정치참여의 호기가 된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부임대전지점 문제로 세상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지역연동 이 예로 되고 있다.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2004년 총선에서 국민의 호소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권에는 새로운 정치판도가 그려질 것이다.

총선의 발호반이 개혁이라는 주목에 여러모로 정치적인 위기국면에서 시민단체와 경제계도 물론 지금까지 정치개혁의 주체인 정치권이 자기변화를 꾀하지 못해 개혁의 긴급으로 지적해왔던 정치개혁의 주체로서도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의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정치권의 주권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여성이 의회참여율을 평가해서 정치하고 있는 '여성의 권한강화' 순위에서 조사대상 70개국중에서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오랜동안 정치분야에서의 부정적 성취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힘쓰고 있다. 지난 금번 총선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구체화해서 실행을 확보해 나갈라는 다짐이 다반사다.

최근 사회의 주목을 끌기에 족한 여성계의 총선대비 활동으로는 여성단체들이 연합해서 발족한 <총선여성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관련 제도개혁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개선을통해 그리고 개인여성 선각자들을 구성한 <한나라당 여성 예트위크>의 17대 국회에 100인 여성국회의원보내기 운동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 비례직 50%와 선출직 30%를 여성에게 할당할것과 돈이 될게주는 정치권 위한 지역당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 그리고 개혁적이고 투명한 선출이면 돈이 없어도 입후보할수 있는 선거공용제나 여성이나 정치인인들이 자계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거구제도 등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의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현행선거제도로 관공소의 당선위를 전수 정치권 경쟁제인을 양산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그대로 두는 한 많은 여성들의 선출의 자계진출은 힘들다 한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이 미래에 총선여성연대의 역할이다.

한나라당 여성 예트위크의 리제는 전후를 현상상을 접미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입후보한 입후보자를 거쳐 후보평단을 작성하고 각정당에 공개 추천하고 공천을 독려하며 선거운동원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예트 위크는 자계진출의 의사가 있는 여성들의 후보리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출자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된 선출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모금활동도 전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도 질문을 한다. 지금 이시점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까. 이시점에서처럼 잘못된 정치체제를 만들어  
하는 세상에서 고질적인 부패정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리에  
합치 각공하고 이권관계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대거 정치에 진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소수의 참여는 세상에서 회색지대 없애기 위하여 필히 정권으로  
참여해야 할지이다.

관행적인 이권다툼이 정치, 대권을 향한 경쟁으로 일관되고 있는 정치권 국민  
의 보편으로 참여 위한 생활정치 나아가서는 사회각 영역의 목지를 위하는 정치  
문제를 전한 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정치 참여가 이제는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정치의 대상으로서  
아닌 여성의 참여로써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회제정등으로 정치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위 당장향후 과제에 있다. 정치권 참여로써 만들어 가는  
정치이다. 이제 참정 정치정치의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사람들은 의욕을 표출하기도 한다. 현재 160명 밖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이렇게 6배나 되는 100명으로 증가 할수 있는 것이고 1001명이면 여성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금번국회에서 여성할당제와 선거공약제 등리되어  
있지만 어떤일이 아니다. 또한 부패정치를 청정화시키는 우리들의 투쟁  
행태의 후이에 따라서는 여성이 참정하고 행위의 여력으로 기대할수 있다.

22일과 24일 이후로 논쟁도 끝나 참정에 기대기 성취하는것은 아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개혁안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  
할수 있도록 제로개혁하는것과 이권관계로 개인여성이 정치입장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여건들을 여성계도 공동노력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

어떤 여성정치인이 내일 흥선을 앞둔 우리들의 정치의 동향 <sup>여성</sup>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내린 흥분이라는 거야 반하고 있다. 이 관심이 내린  
기회적 실질적으로 성취해 내는것에는 이미 활동을 개시한 흥선여성연대로  
여성정치 여성계연대의 선조적인 역할수행에 맞게 각층의 여성들이  
함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무대 가까이 뒤로남이 해투기를 빼고  
있어주는 관심이 내린 흥분으로 하느라 된다. 현재 6개월을 앞두고 있는  
2004 총선에서 여성계의 오랜 숙원의 여성정치참여 30%를 달성  
해 내는것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함께 꾸는 끝까지 끝까지  
고려할수 있다.